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1. 3. 30.(화), 10:2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	차미희, 박영미, 원용진, 배성아, 유제욱, 박수정, 이희주, 남상택, 이정화, 오숙환, 김정권	신태섭(간사)
불참인원	1	김명화	

### 4. 안건

- 제1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구성 후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하다.
- 나. 간사는 김명화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 6. 안건 심의

####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1) 간사는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설명한 후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평의원들에게 의견제안을 요청하다. 참고로 지난 6기에는 의장, 부의장 후보를 호선으로 추천, 재청 받은 후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선출하였고, 부의장의 경우 2명의 후보를 호선으로 추천 받아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도 있었음을 안내하다.

- (2) 남상택 평의원은 교수평의회 의장인 차미희 평의원을 의장으로 추천하고, 이정화 평의원이 재청하다. 간사는 참석한 평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차미희 평의원이 제7기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3) 의장으로 선출된 차미희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하다.
- (4) 지난 기수와 동일하게 교수평의회 부의장을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안에 대해 오숙환 평의원이 동의하고, 김정권 평의원이 재청하다. 의장은 참석 평의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박영미 평의원이 제7기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편제조정 관련 안건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학사부총장, 대외부총장, 기획처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리다.

(배석: 학사부총장, 대외부총장, 기획처장)

- (2) 대외부총장은 첨단분야 학과의 편제조정(안)과 관련하여 스크랜튼대학 융합학부 AI융합전공을 소속 단과대학 없이 AI융합학부 인공지능전공으로 재조정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다.
- (3) 이어 기획처장은 스크랜튼대학 뇌·인지과학부로의 학부명칭 재변경과 PRIME 사업 사후관리 방안 수정계획에 따른 엘텍공과대학 식품공학전공 및 화학신소재공학전공의 전공명칭 변경 건에 대해 설명하다.
- (4) 유제욱 평의원은 첨단분야 학과 관련 TFT 위원 구성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학교의 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한 이유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다.
- (5) 대외부총장은 기존 위원들을 포함하여 TFT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친 결과, 특정 분야와의 융합을 전제로 하는 융합전공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AI Core 전공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다양한 전공(학과)과의 융합과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다고 답하다. 이어 향후 본교 첨단분야 학과를 확대하고 단과대학으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별도 학부로 설치하는 안에 대한 공감기가 있었다고 설명하다.
- (6) 배성아 평의원은 지난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우리 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입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크랜튼대학에 AI융합전공을 신설하는 것으로 편제조정 사유를 설명하였었는데, 소속 단과대학 없이 AI융합학부 인공지능전공으로 변경이 되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7) 대외부총장은 변경 전 교육과정은 AI Tech 트랙과 AI 경영트랙으로 나누어 있었고, 이번

편제조정에 따른 교육과정은 기존 AI Tech 트랙과 유사하게 AI Core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이어 향후 다양한 전공(학과)과의 연계를 통해 응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 (8) 남상택 평의원은 소속 단과대학 없이 학부로만 설치될 경우 소속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전하고, 단과대학으로 확대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9) 대외부총장은 PRIME 사업으로 2024학년도부터 엘텍공과대학의 편제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입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크랜튼대학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었으나, 교내 인공지능 분야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AI Core 전공이 플랫폼을 갖고 성장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편제를 조정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설명하다. 이어 한 개의 전공만으로 단과대학을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독립학부로 설치하되, 향후 첨단분야 전공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타교의 소프트웨어대학, IT대학 등과 같이 단과대학으로 확대·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전달하다. 스크랜튼대학에 설치하여 입학생이 있는 상태로 편제를 향후 재조정하게 되는 경우 재적생 전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여 매우 어려우며, 변경 후에도 긴 기간 동안 이전 편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소속에 대한 혼란, 행정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다.
- (10) 박영미 평의원은 인공지능전공의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한 수의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원용진 평의원은 몇 명의 교원을 충원할 계획인지 질의하다.
- (11) 대외부총장은 구체적인 인원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상시적 신규 교원 Search Committee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교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인공지능 분야 전임교원 초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의 경우 기업체 근무자의 교수 겸직발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본교도 해당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다.
- (12) 배성아 평의원은 소속 단과대학이 없는 전공은 학생 관리, 교원 충원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 후 중도 이탈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조직 및 담당부서 등에 대한 구상 계획을 질의하다.
- (13) 대외부총장은 과거 국제학부를 독립학부로 운영했었던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빠른 시간 내에 단과대학 수준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하다.
- (14) 의장은 단과대학으로의 확장 계획의 추진 배경과 준비 상황을 질의하고, 특히 AI융합학부 신설은 어떠한 타임 테이블에 의해 준비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다.
- (15) 대외부총장은 지난 편제조정안의 경우도 많은 고민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 첨단분야 확대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편제 재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본교 일반편입학 정원이 평균 250명 정도이므로 120명의 첨단분야 학과 신입생 모집이 가능한 상황이나, 우선 편입정원 80명을 활용하여 입학정원

40명 규모의 인공지능전공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확대가 가능함을 설명한다. 이어 타 대학의 경우 일반편입학 여석을 모두 사용하거나 다른 전공(학과)의 정원까지 조정하여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하는 대학도 있음을 부연한다. 2023학년도까지는 엘텍 공과대학의 편제조정이 불가한 상황 등 여러 현실 여건들을 고려해볼 때, 현재는 확장성 측면에서 소속 단과대학 없이 학부로 재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이뤄졌음을 설명한다.

- (16) 김정권 평의원은 신산업융합대학의 단과대학 건물이 지금까지 부재한 것을 지적하며, 물리적으로 해당 학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질의하다.
- (17) 대외부총장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몇 군데의 공간을 후보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하다.
- (18) 배성아 평의원은 향후 단과대학으로 발전하더라도 최소 2년의 기간은 학부로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행정지원 계획을 재질의하다.
- (19) 대외부총장은 첨단분야 학과는 평판도 제고 및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 재정 투자를 전제로 신입생 입학 전까지 교원 배치, 공간 배정, 학생 관리 등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 (20) 김정권 평의원은 첨단분야 학과 신설 시 대외적 홍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산학협력 관점에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21) 대외부총장은 인공지능은 산업체와 연계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산업 참여형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첨단분야 학과 신설 준비 TFT 운영을 편제조정 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TFT 위원들이 연속해서 교육과정 수립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다.
- (22) 의장은 추후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확대 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공유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편제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의견 수렴 과정 등 준비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지를 질의하다.
- (23) 대외부총장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처장회의, 교무회의 뿐 아니라 별도의 학장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고, 대학원장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답하다. 이번 편제조정안은 교육부 제출 마감일이 촉박하여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으나, 앞으로 비전 및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구성원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하다.
- (24) 원용진 평의원은 엘텍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으로의 전공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유사 전공(학과)과 공유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 질의하다.
- (25) 기획처장은 해당 건의 경우 2021학년도 편제조정안으로 이미 교내에서는 공유되고, 2019.1월 최종 승인이 되었으나, 당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PRIME 학과 편제조정

불가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못했던 사안임을 설명하고, 이번 2월 PRIME 학과의 일부 지표에 대해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이 수정되어 새로 승인되었다고 답하다.

- (26) 박영미 평의원은 전공 분야의 확장성과 명확성을 위해 식품생명공학전공과 화공신소재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문 명칭으로 보면 오히려 의미가 축소되거나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 (27) 간사는 식품 분야에서의 생명공학 기술과의 융합, 활용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들이 식품생명공학으로 전공명칭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어 화학신소재공학전공은 화학공학전공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화학전공과 신소재공학으로 이해되어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에서 학과명에 화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하다.
- (28) 남상택 평의원은 박영미 평의원의 의견에 동의 의견을 표하고, 다만 전공명칭 변경을 통해 입학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공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하다.
- (29) 김정권 평의원은 해당 전공의 본질이 바뀌는 것인지 질의하고, 명칭변경은 명분과 대외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다. 이어 학교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승인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 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30) 기획처장은 해당 전공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나 전공명칭 변경과 사회 수요에 따라 교과과정도 일부 수정될 수 있고, 교원 충원이 더 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하고,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발전적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공(학과)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다. 이어 기존 화학신소재공학전공 재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를 확인하고, 재학생도 변경된 명칭으로 소속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응답자의 75%)을 보내왔음을 안내하고, 변경된 전공명칭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하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통보한 결과는 가승인 상태로 내부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본교 학칙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31) 배성아 평의원은 화공이 화학공학의 줄임말로 국문 명칭에서도 의미가 중복됨을 지적하고, 기존 재학생들이 소급적용을 요청한 것은 변경된 전공명칭을 선호하여서 보다는 없어지는 전공명칭으로 재적 및 졸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유도 클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다. 편제를 바꾸는 경우 소속변경 등 혼란이 있음을 설명하고 단순히 트렌드를 쫓기 위한 전공명칭 변경이 아닌 실제 교과과정 개선 및 전공(학과)의 발전계획 등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32) 기획처장은 전통적인 명칭은 화학공학이 맞으나 신소재가 명칭에 포함되면서 화공의 정체성이 희석되어 보이는 문제로 변경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재학생들의 의견은 더 검토하

고, 전공(학과)과도 논의하겠다고 답하다.

- (33) 의장은 편제조정 관련 교원 충원, 교육과정 마련, 학생관리, 정원조정 등에 대하여 구성원과의 소통 과정을 염두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 후 심의를 종료하다.

## 나. 기타사항

### □ 차기 회의 일정 및 평의원 배부자료 안내

- (1) 간사는 차기 회의로 결산 자문을 위한 정기회가 4월에 개최되어야 함을 알리고, 회의자료에 제시된 일시(안) 중 평의원들의 가능 일정을 확인하다. 불참한 평의원을 포함하여 일정 조사 후 정기회 일정을 확정하여 안내하기로 하다.
- (2) 간사는 위촉장과 함께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 등의 자료를 배부하였음을 안내하고 확인을 요청하다.

##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21년 3월 30일

의 장 차 미 희

차 미 희 (인) ha